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Part-Time Job,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of Adolescents^{*}

Jeon, Yeong-Uk

Associate Professor, Dept. of Youth Education,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Background: Many adolescents work part-time jobs for financial motives such as pocket money or living expenses, but other adolescents work part-time jobs for non-monetary motives such as interests and social experiences. Although the effect of adolescents' part-time job motivation on career development may be different, there are few empirical studies on this.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motivation for part-time job, self-efficac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career maturity in adolescents.

Methodolog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1th graders(N = 10,558) who participated in the first year of KEEPⅡ (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2016) conducted by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the data of 9,666 students, excluding cases with missing values,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IBM SPSS software (Version 26).

Findings: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time job experience,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However,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s' part-time job motivation,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In other words, adolescents with non-monetary part-time job motives had higher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and career maturity than those with monetary motives.

Conclusions: The motivation for part-time job of adolescents affects their career development. Effective intervention by youth leaders is important when adolescents choose and perform part-time jobs.

Keywords: Motivation for part-time job, 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 Career maturity

* This research was supported by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Research Fund.

Corresponding Author: Jeon, Yeong-Uk

Associate Professor, Korea National Open University

Main building 712, 86, Daehak-ro, Jongno-gu, Seoul, 03087, Republic of Korea

ORCID: <https://orcid.org/0000-0003-4130-7255>

Email: aramhb@knou.ac.kr

Received: December. 1. 2022 **Revised:** December. 27. 2022 **Accepted:** December. 27. 2022 **Publication:** December. 31. 202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전영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조교수

배경: 많은 청소년들은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흥미와 사회경험 등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지만,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를 탐색하는데 있다.

방법: 이 연구의 대상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KEEP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Ⅱ) 1차(2016)년도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이며(N = 10,558), 결측치가 있는 사례를 제외한 9,666명의 데이터가 분석에 포함되었다.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IBM SPSS 소프트웨어(Version 26)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났다. 즉,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보였다.

시사점: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그들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선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의 효과적인 개입이 요구된다.

주요어: 아르바이트 동기,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 이 논문은 2021년도 2분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것임.

교신저자: 전영욱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청소년교육과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86,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본관 712호

ORCID: <https://orcid.org/0000-0003-4130-7255>

Email: aramhb@knou.ac.kr

투고일: 2022. 12. 1

심사일: 2022. 12. 27

게재확정일: 2022. 12. 27

발행일: 2022. 12. 31

I. 서 론

인간은 일을 통해 스스로를 부양하고 생계를 책임진다. 또한 숙련과 역량을 습득하고 사회적 접촉을 도모하며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하기도 한다. 그러나 인간은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며 소진(burn-out)이나 집단따돌림을 경험할 수도 있다. 이러한 일의 이중적 모습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자들은 인간과 노동 사이에서 발생하는 상호작용에서 자기실현의 기회가 발생한다고 보았다[1].

인간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건강이나 사회적 능력뿐만 아니라 직업적 관심과 역량도 반드시 필요한데, 그 기반은 청소년기에 형성된다[2]. 청소년에게 현재와 미래의 직업은 인생의 목적과 목표를 실현하는 통로이다. 청소년은 일을 통해 세상에서 자신이 채워야 할 자신만의 자리가 있음을 느낀다[3]. 즉, 청소년이 현재 수행하고 있거나 장차 수행하고 싶은 일에는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관한 질문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무엇을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어 있다[4].

청소년이 현재 수행하는 일은 대체로 ‘아르바이트’ 혹은 ‘알바’로 불린다. 아르바이트(arbeit)는 노동을 뜻하는 독일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본래의 직업이 아닌 임시로 하는 일’이라는 사전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 현실에서 아르바이트는 최저임금 수준의 보수를 받으며 업무환경도 그다지 좋지 못하기 때문에 젊을 때 잠깐 하는 일로 여겨진다. 더구나 우리 사회에서는 학교와 학업 중심의 생활방식이 청소년기의 표준으로 여겨지기 때문에[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수행을 일탈행위로 보기도 한다. 우리나라에서 발표된 상당수의 논문에서도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학업이나 학교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6, 7], 각종 비행과 관련 있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8, 9, 10, 11].

그러나 일에는 이중적 속성이 있듯이, 청소년이 수행하는 아르바이트도 부정적인 면과 함께 긍정적인 면을 지니고 있다. 청소년은 일을 통해 다른 사람을 돕는 기회(helping opportunities)를 가지며,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상사와 동료의 지원(supervisor & coworker support)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청소년들은 일에서 자율성(autonomy)과 학습 기회(learning opportunities)뿐만 아니라 특정 기술을 활용하는 경험을 할 수 있다[12]. 그래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청소년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경험하는 일의 성격과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동기 등 다차원적인 탐색과 분석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모든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 현장과 그곳에서의 다양한 경험을 수동적으로 선택하거나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어떤 청소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아르바이트를 선별하여 찾고, 일할 시간을 정하며, 고용의 조건과 질을 주도적으로 선택한다[13]. 또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선택한 동기도 주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 중 61.1%는 용돈이나 생활비 마련을 위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만, 34.0%는 사회경험이나 재미 등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한다[14]. 이처럼 청소년은 금전뿐만 아니라 개인적 흥미와 사회경험 등 다양한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는데, 일부 질적 연구에서는 비금전적 동기로 시작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자기성장 및 미래준비 등과 관련 있다고 제시하였다[15, 16]. 이처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는 그들의 진로발달(career development)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지만[17],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달 간의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특히,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진로발달의 하위 개념이자 그 결과로 볼 수 있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career decision-making self-efficacy)과 진로성숙(career maturation)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 기반하여[18, 19],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밝히려고 한다. 한편, 이들의 관계를 보다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에 관한 자료를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을 중심으로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기에 이 둘을 각각 분석하여 비교하는 것은 이 연구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가정배경과 학교 및 교육배경을 통제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더욱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밝히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청소년의 바람직한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의 조건과 교육적 실천을 모색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청소년 아르바이트 현황 및 참여 요인

2020년 기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비율은 4.6%로, 2016년 11.3%, 2018년 9.0%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의 영향으로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를 하는 업종의 일자리가 줄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14]. 학교급별로 보면,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4%, 고등학생은 7.6%로 나타났으며, 특히, 직업계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률은 16.7%로 높게 나타났다[14].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대체로 1학년에서 2학년 여름 방학 시점에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며, 가구소득이 하위 25%에 해당되는 청소년들이 보다 빠르게 아르바이트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0]. 이는 아르바이트 동기에서도 확인되는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한 적이 있는 청소년 중 61.1%가 용돈이나 생활비와 관련된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였다[14].

지금까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요인들이 아르바이트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YMCA의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활용한 장원섭(2001)은 가정의 경제력이 낮을수록, 학교성적이 높을수록, 나이가 많을수록, 용돈을 많이 사용할수록,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일수록 아르바이트를 경험할 확률이 높다고 제시하였다[21]. 고용정보원의 제2차 청년패널조사(Youth Panel)를 활용한 양정호(2004)는 가정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부모의 교육수준 및 학교성적이 낮을수록, 일반계 고등학생에 비해 직업계 고등학생이 아르바이트 참여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였다[22].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의 1-3년차 자료를 활용한 유성렬(2010)은 중3 시기의 아르바이트 참여 요인으로는 전년도의 학교성적, 전년도 음주와 흡연경험 등으로, 고1 시기는 전년도의 학교성적과 음주경험, 고등학교의 유형 등으로 제시하였다[23]. 그리고 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조사(YP2007) 1-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한 이기혜 등(2016)은 중학교 3학년 때의 성적이 낮은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입학 이후 아르바이트를 보다 많이 경험하였으며, 학교생활 만족도는 아르바이트 참여와 부적의 관계가 있지만 교우관계는 정적인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20]. 종합하면, 우리나라에서는 대체로 가정의 경제력이 낮을수록[20, 21, 22], 학업성적이 낮을수록[20, 22, 23] 청소년이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확률이 높으며,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가출[21] 및 음주·흡연[23]과 같은 일탈 경험과 관련이 있고, 비행성이 높은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것처럼 보인다[9].

2.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영향

일이 인간에게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듯이, 아르바이트도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아르바이트가 청소년의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면,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학업을 방해하며,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치고, 대학 진학 가능성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Staff 등(2019)은 미국의 2009년 고등학교 종단 연구(the high school longitudinal study of 2009)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고용강도(employment intensity)와 고등학교 성적 및 중퇴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주당 20시간 이상의 고강도 노동(intensive work)은 낮은 성적과 고등학교 중퇴의 위험요인이라고 지적하였다[7]. 국내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가족배경이나 이전의 학업성적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아르바이트는 현재의 학업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6], 청소년기 노동경험, 주당노동시간, 노동지속기간은 대학 진학의 가능성을 낮추고, 진학을 하더라도 4년제 대학보다는 전문대학으로 진학할 가능성을 높였으나, 취업 가능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24].

청소년의 아르바이트는 비행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지속시간이 길수록, 주당 근무일수와 일일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중학생은 아르바이트로 인한 부

정적인 경험을 더 많이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중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무단결석, 흡연, 음주, 가출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25]. 또한 고등학생의 노동강도와 지속정도는 음주, 흡연, 문제행동, 폭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피로와 숙련수준은 청소년의 부적응행동 중 음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8]. 이처럼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보다 흡연, 음주, 고카페인, 위험 성행동이 높게 나타났다[11]. 일부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학교부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음주빈도와 공격성을 이중매개로 학교부적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0].

한편, Mortimer(2010)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강도와 지속 시간이 적절할 때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촉진할 수 있으며, 학교생활과 아르바이트 사이의 적절한 균형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청소년 아르바이트의 부정적 결과로 제시되는 음주, 흡연, 약물사용 등 부적응 행동은 아르바이트 자체보다는 자기선택(self-selection)에 기인한다고 제시하였다[26]. 즉, 이미 부적응 행동을 보이는 청소년들이 과도한 노동(intensive work)을 선택하는데, 이는 노동이 ‘성인의 지위에 대한 주장(claims to adult status)’을 나타내며 ‘가짜 성숙(pseudo-maturity)’의 지표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아르바이트에서 얻은 수입이 부적응 행동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자체가 청소년 발달에 나쁜 결과를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제안하였다[26].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을 함께 미칠 수 있다. 어떤 성인에게 일터는 즐거운 공간이지만 다른 성인에게는 고통의 장소이듯이, 청소년에게 아르바이트 장소는 부모와 교사의 간섭과 통제에서 벗어난 그들만의 즐거운 놀이터인 반면, 장시간 높은 강도의 일을 해야 하는 힘든 일터가 될 수 있다[27]. 또한 아르바이트는 학업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값진 경험이기도 하지만, 충실한 학교생활을 어렵게 하며 충동적 소비를 초래하는 후회의 경험이 될 수도 있다[27]. 이렇듯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은 ‘중심 알바’로 구조화될 수 있으며 ‘주변 알바’로 구조화될 수도 있다[28]. 일정한 시간 동안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안정된 장소에서의 고유한 업무가 뒷받침될 때 ‘중심 알바’의 구조가 형성되는데, 이 경우에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의미를 창출할 수 있다. 반면, 청소년 아르바이트는 ‘주변 알바’로 구조화될 수도 있는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욕구는 빠르게 충족하지만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고유한 업무를 숙달하기에는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며, 낯설고 불안한 공간에서 소속감을 느낄만한 어떠한 연결고리도 찾지 못할 수 있다[28].

3.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의 관계

청소년기 적절한 아르바이트 경험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영향을 주며, 특히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높일 수 있다[17]. 일반적으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개인이 진로를 결정

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인지된 능력을 말한다[29].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Bandura의 사회인지이론(social cognitive theory)의 주요 변인 중 하나인 자기효능감(self-efficacy)에서 파생된 개념이다. 자기효능감은 한 사람의 노력 강도를 결정하는데[30], 진로결정 효능감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로탐색과 진로준비행동 및 진로결정의 수준이 높은 반면, 자신의 진로와 관련하여 효능감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로결정을 미루거나 포기하고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자기효능감의 관계는 상반되게 나타났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구직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31], 오히려 진로결정 스트레스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32]. 반면, Cunnien 등(2009)은 청소년기 일 경험(work experience)과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제시했는데, 상대적으로 장기간 동안 낮은 강도로 일한 청소년(steady workers)은 단기간 동안 낮은 강도로 일한 청소년(occasional workers)과 단기간 동안 높은 강도로 일한 청소년(sporadic workers)보다 경제적 효능감(economic efficacy)과 일반적 효능감(generalized self-efficacy)이 높게 나타났다[18]. 또한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상사의 지원(supervisory support)도 청소년의 경제적 효능감과 일반적 효능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컨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부적인 관계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르바이트의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날 있음을 알 수 있다[18].

진로성숙은 Super(1955)가 제시한 직업성숙(vocational maturity)에서 도출된 개념으로 진로발달에 관련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혹은 효과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도를 말한다[33, 34]. 진로성숙은 상당한 수준의 자기인식, 직업에 대한 지식, 계획수립능력의 개발과 같은 청소년기의 성취와 관련이 있다[35]. 이렇듯 진로성숙은 몇 가지 요소들로 구성되는데, Crites(1978)는 진로성숙을 태도와 역량으로 구분하였으며, 태도는 진로결정에서의 결정(decisiveness), 몰입(invovement), 독립(independence), 지향(orientation), 타협(compromise)으로, 역량은 자기평가(self-appraisal), 직업정보(occupational information), 목표선택(goal selection), 계획(planning), 문제해결(problem solving)로 제시하였다[36]. 그리고 임언 등(2001)은 진로성숙을 태도와 능력 및 행동으로 구분하였는데, 태도는 독립성, 계획성, 일에 대한 태도로, 능력은 자기이해, 합리적 의사결정, 직업지식으로, 행동은 진로탐색 및 준비행동으로 하위 요소를 제시하였다[37].

선행연구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의 관계도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성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지만[38, 39], 청소년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은 진로의식성숙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업무만족도가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제시한 연구도 있다[40]. 일반적으로 업무에 대한 자율성이 높을 때 구성원은 작업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는 내적 동기와 작업품질을 높일 수 있는데[4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도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처럼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의 관

계는 청소년이 아르바이트를 수행하게 된 배경이나 동기 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청소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고된 현실에 직면하지만 이를 통해 성장을 경험하기도 한다[15]. 청소년은 아르바이트 경험을 통해 아르바이트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개인적 성향, 아르바이트 동기, 일에 대한 가치지향성, 작업 환경이나 부모로부터의 지지 등과 관련 있다[19]. 그래서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발달과의 관계를 정확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둘러싼 환경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이해관계자들과의 상호작용,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 등 다양한 변인들이 탐색되어야 한다.

특히, 일은 돈을 벌기 위해 정신적 혹은 육체적 노력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만족감과 성취감의 원천이 될 수 있다. 어떤 청소년들은 가정경제 보조, 소비욕구 충족, 독립성 추구 등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다른 청소년들은 자기성장 및 미래준비 등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한다[15]. 이처럼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되어 뚜렷한 목적을 갖고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16]. 요컨대,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및 진로성숙과의 관계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주목할 필요가 있지만, 이를 실증적으로 밝힌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6)에서 실시한 한국교육고용패널Ⅱ(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II: 이하 KEEPⅡ) 1차년도 조사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KEEPⅡ는 우리나라 청소년과 청년의 교육과 노동시장 간의 관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국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2016년부터 추적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패널의 표본은 지역별(일반계고), 학교유형별(특성화고), 설립유형별(외국어고, 예술고)로 층화추출법을 통해 추출되거나 단순무작위(과학고, 체육고, 마이스터고)로 추출되었다. 층화추출법을 통해 추출한 표본은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확률비례추출법으로 학교를 선정하였으며, 1차로 추출된 학교에서 5개 학급을 추출하고 학급에서 계통추출법으로 5명의 학생을 조사대상으로 하였다(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편, KEEPⅡ 1차(2016)년도에는 학생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환경과 학교환경, 담임교사의 특징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학생 설문과 별도로 학생의 보호자(학부모), 학생의 담임교사, 조사 참여 학교의 학교행정가(교감·교무담당)를 대상으로 설문이 실시되었다[42]. 이 연구의 연구대상은 KEEPⅡ 1차(2016)년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이며(N = 10,558), 결측치가 있는 사

례를 제외한 9,666명(여학생 = 4,559명(47.2%), 남학생 = 5,107명(52.8%))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2. 변수

가. 종속변수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다.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등 8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추출 방법은 주성분 분석을 활용하였다. 요인 분석 결과, 단일요인으로 추출되었으며 8개 문항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약 50.3%를 설명하

〈표 III-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공통 변량	요인 적재값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에서 필요로 하는 직업윤리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Y16S01126]	.526	.725
나는 우리사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직업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설명할 수 있다. [Y16S01127]	.454	.674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고등교육 기관의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Y16S01128]	.425	.652
나는 내가 원하는 대학이나 전공 학과의 정보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탐색할 수 있다. [Y16S01129]	.608	.780
나는 희망(관심) 직업의 정보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여 탐색할 수 있다. [Y16S01130]	.625	.791
나는 여러 가지 직업 정보 중 믿을 수 있는 정보와 그렇지 않은 정보를 판단할 수 있다. [Y16S01131]	.460	.678
나는 특성과 환경을 고려하여 장기적인 진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Y16S01133]	.533	.730
나는 진로를 준비할 때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Y16S01137]	.396	.629
고유값	4.027	
분산비율(%)	50.34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70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Chi-square	29050.738
	df(p)	28(p<.001)

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1> 참조). 조사도구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8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진로성숙은 계획성, 직업에 대한 지식, 자기이해로 구성되었다. 계획성은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등 4개의 문항, 직업에 대한 지식은 “나는 일과 직업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등 2개 문항, 자기이해는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등 3개의 문항이 포함되었으며, 각 문항은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문항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주성분 분석을 사용하여 요인을 추출하였으며, 요인회전은 직접 오블리민(oblimin)을 활용하였다. 요인분석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각 요인들이 각 구인을 측정하는 항

<표 III-2> 진로성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

문항	요인1 (계획성)	요인2 (자기이해)	요인3 (직업지식)
나는 내가 원하는(혹은 관심 있는)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학력이나 자격 등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다. [Y16S01132]	.767		
나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내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에 대한 계획이 있다. [Y16S01134]	.846		
나는 내가 원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준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Y16S01135]	.883		
나는 진로(대학 진학, 취업, 창업 등)를 선택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이 있다. [Y16S01136]	.766		
나는 새로운 직업이나 진로를 개척한 사람들의 사례를 알고 있다. [Y16S01124]			.896
나는 일과 직업 세계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알고 있다. [Y16S01125]			.886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알고 있다. [Y16S13012]		-.874	
내가 좋아하는 일을 알고 있다. [Y16S13013]		-.885	
내 삶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고 있다. [Y16S13014]		-.794	
고유값	4.165	1.194	1.104
분산비율(%)	46.278	13.266	12.264
누적비율(%)	46.278	59.544	71.808
KMO(Kaiser-Meyer-Olkin) 표본 적합도			.846
Bartlett의 단위행렬 검정	Chi-square	35089.742	
	df(p)	36(p<.001)	

목들의 변량을 적합하게 설명함에 따라 구인타당도를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표 III-2> 참조). 진로성숙 전체 문항의 내적합치도 계수(Cronbach's α)는 .853으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나. 독립변수

이 연구의 독립변수는 아르바이트 동기이다. 아르바이트 동기는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 일을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9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2 =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3 =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4 = 용돈이 필요해서, 5 =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6 =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 7 =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8 =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 9 = 기타).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금전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관심이 있으므로, “가족의 생활비를 벌려고”, “학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용돈이 필요해서”,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싶어서”를 하나로 범주로 구분하였다(금전적 동기). 다음으로 “전공과 관련이 있어서”, “취업 경험을 쌓기 위해”, “개인적인 관심과 흥미 때문에”, “부모나 친지 등의 권유로”를 또 하나의 범주로 구분하였다(비금전적 동기). “9 = 기타”는 아르바이트 동기에 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을 추가하여 아르바이트 동기 변수를 구성하였다(금전적 = 1,629(16.9%), 비금전적 = 530(5.5%), 미경험 = 7,507(77.7%)).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로 활용된 아르바이트 경험과 이 연구의 독립변수인 아르바이트 동기가 각각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경험도 변수로 투입하였다. 아르바이트 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돈을 받고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Y16S06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1 = 예, 2 = 아니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차이를 분석한

<표 III-3>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의 차이

구분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진로성숙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평균	표준편차	t / F	Scheffe	
경험	있음	3.38	0.634	8.458***	-	3.72	0.754	5.461***	-
	없음	3.52	0.632			3.82	0.719		
동기	비금전적(a)	3.52	0.660	52.093***	a, c>b	3.85	0.737	26.233***	a, c>b
	금전적(b)	3.34	0.619			3.68	0.755		
	미경험(c)	3.52	0.632			3.82	0.719		

*p < .05, **p < .01, ***p < .001

결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집단은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르바이트 동기가 ‘금전적’인 집단은 ‘비금전적’인 집단 및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에 비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르바이트 동기가 ‘비금전적’인 집단과 아르바이트 경험이 없는 집단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III-3> 참조).

다. 통제변수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5, 38, 39],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가정배경과 관련된 변수는 성별(1 = 남학생; 2 = 여학생), 가구소득,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였다. 가구소득과 부모학력은 학생의 보호자(학부모)가 가구설문지에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은 “2015년 9월부터 2016년 8월까지의 귀택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어느 정도입니까?{W16H06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월평균 가구소득을 만원 단위에서 자연 로그 값(ln)으로 변환한 값을 사용하였다. 부모의 학력은 “학생의 남성(여성) 보호자는 학교를 어디까지 다녔습니까? 혹은 다니고 있습니까?”, “학생의 남성(여성) 보호자의 최종학교 졸업여부는 어떠합니까?”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 전자의 질문에는 8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으며(1 = 무학, 2 = 초등학교, 3 = 중학교, 4 = 고등학교, 5 = 2-3년제 대학, 6 = 4년제 대학, 7 = 대학원(석사), 8 = 대학원(박사)), 후자의 질문에는 3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졸업, 2 = 중퇴, 3 = 재학). 부모학력은 졸업을 기준으로 5점 척도로 재구성하였으며(1 = 중졸 이하, 2 = 고졸, 3 = 전문대졸, 4 = 대졸, 5 = 대학원졸), 아버지의 최종학력과 어머니의 최종학력 중 높은 것을 변수 값으로 사용하였다¹⁾. 부모와의 대화는 “부모님(보호자)과 다음 내용에 대해 얼마나 자주 대화합니까?”의 질문에 대한 4개의 하위문항(“나의 흥미와 적성(Y16S03049)”, “나의 미래 직업(꿈, 희망)(Y16S03050)”, “학교 및 학과 선택(Y16S03051)”, “삶의 가치관(Y16S03052)”)으로 측정되었으며, 5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전혀 하지 않음, 2 = 월 1회 정도, 3 = 주 1~2회 정도, 4 = 주 3~4회 정도, 5 = 거의 매일). 부모와의 대화의 측정도구의 신뢰도(Cronbach's alpha)는 .888이었다.

학교 및 교육과 관련된 변수는 학교유형, 학업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만족도, 현장체험경험이었다. 학교유형은 “재학 중인 고등학교 유형은 무엇입니까?(Y16S01001)”의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으며, 응답자에게 8개의 선택지가 제시되었다(1 = 일반고등학교, 2 = 자율고등학교, 3 = 특성화고등학교, 4 = 과학고등학교, 5 =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 6 = 예술고등학교, 7 = 체육고등학교, 8 = 마이스터고등학교).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등학교”, “자율고등학교”, “과

1) 이 연구에서는 남성보호자가 아버지인 사례와 여성보호자가 어머니인 사례만 사용하였음.

학교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계고로, “예술고등학교”, “체육고등학교”를 예체능계고, “특성화고등학교”, “마이스터고등학교”를 직업계고로 구분하였다. 학교 유형별 빈도는 일반계고 6,007명(62.1%), 예체능계고 444명(4.6%), 직업계고 3,215명(33.3%)이었다. 학업성취는 국어([Y16S01048]), 수학([Y16S01051]), 영어([Y16S01054]) 교과목에 대해 각각 “잘한다.”고 인식하는 수준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으며(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국어, 수학, 영어 교과목 성적에 대한 학생들의 응답을 평균하여 처리하였다. 교육포부는 “어느 수준까지 교육받기를 희망합니까?([Y16S07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고(1 = 고등학교, 2 = 2-3년제 대학, 3 = 4-6년제 대학교, 4 = 대학원 석사, 5 = 대학원 박사), 진로교육만족도는 “학교에서 수행하는 진로교육 및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습니까?([Y16S01087])”에 대한 응답으로 5점 척도로 측정되었다(1=전혀 그렇지 않다; 5=매우 그렇다). 그리고 현장체험경험은 “고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2016년 8월까지 현장체험 경험이 있습니까?([Y16S05001])”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되었다(1 = 예, 2= 아니요).

전체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III-4>와 같다.

<표 III-4> 변수의 기술통계(N=9,666)

구분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종속변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3.49	0.635	1.00	5.00
	진로성숙	3.80	0.728	1.00	5.00
가정배경	성별(0=여학생, 1=남학생)	0.53	0.499	-	-
	부모학력	3.05	1.106	1.00	5.00
	가구소득(ln)	6.08	0.581	1.95	8.99
	부모와의 대화	2.77	0.967	1.00	5.00
학교 및 교육배경	학교유형(0=일반계, 1=직업계)	0.33	0.471	-	-
	학교유형(0=일반계, 1=예체능계)	0.05	0.209	-	-
	학업성취	2.95	0.763	1.00	5.00
	교육포부	2.76	1.048	1.00	5.00
	진로교육만족도	3.27	0.932	1.00	5.00
	현장체험경험(0=없음, 1=있음)	0.69	0.462	-	-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0=없음, 1=있음)	0.22	0.417	-	-
	아르바이트 동기(0=금전, 1=비금전)	0.05	0.228	-	-
	아르바이트 동기(0=금전, 1=무경험)	0.78	0.417	-	-

3. 분석방법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IBM SPSS 소프트웨어(Version 26)를 활용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IV-1>과 같다. 모형 1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12, p > .05$). 모형 2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B = .119, p < .001$), 아르바이트 무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17, p > .05$). 즉,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보다 높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정배경으로 설정한 성별,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가구소득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및 교육배경으로 설정한 학교유형, 학업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 만족도, 현장체험경험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의 관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각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IV-2>와 같다. 모형 1은 청소년의 아르바

〈표 IV-1〉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9,666)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t	B	S.E.	t	
(상수)	1.611	.068	23.784***	1.604	.067	23.805***	
가정배경	성별(1=남학생)	-.036	.011	-3.145**	-.036	.011	-3.197**
	가구소득(ln)	.013	.011	1.221	.012	.011	1.164
	부모학력	.024	.006	4.255***	.024	.006	4.244***
	부모와의 대화	.108	.006	18.161***	.106	.006	17.904***
학교 및 교육배경	학교유형(1=직업계고)	-.028	.014	-1.982*	-.028	.014	-1.984*
	학교유형(1=예체능계고)	-.095	.027	-3.515***	-.096	.027	-3.569***
	학업성취	.231	.008	29.647***	.231	.008	29.690***
	교육포부	.120	.006	19.094***	.119	.006	19.079***
	진로교육 만족도	.114	.006	18.417***	.114	.006	18.409***
	현장체험경험(1=있음)	.099	.012	8.174***	.099	.012	8.114***
아르바이트	아르바이트 경험(1=있음)	.012	.014	.857	-	-	-
	아르바이트 동기(1=비금전)	-	-	-	.119	.027	4.326***
	아르바이트 동기(1=무경험)	-	-	-	.017	.016	1.113
R ²	.255			.257			
adj R ²	.254			.256			
F	300.884***			277.876***			

* p < .05, ** p < .01, *** p < .001

이트 경험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며, 이들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07, p > .05). 모형 2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이다. 청소년의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으나(B = .104, p < .001), 아르바이트 무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B = .019, p > .05). 즉,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마찬가지로,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해서 분석하면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보다 높은 진로성숙을 보였다. 그러나 아르바이트를 경험하지 않은 청소년과 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진로성숙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통제변수 중 가정배경으로 설정한 성별, 부모학력, 부모와의 대화는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

을 미쳤으나, 가구소득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학교 및 교육배경으로 설정한 학업 성취, 교육포부, 진로교육 만족도, 현장체험경험은 청소년의 진로성숙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학교유형은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표 IV-2〉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9,666)

구분	모형 1			모형 2			
	B	S.E.	t	B	S.E.	t	
(상수)	2.184	.084	26.149***	2.174	.083	26.156***	
가정배경	성별(1=남학생)	.059	.014	4.199***	.059	.014	4.166***
	가구소득(ln)	.011	.013	.840	.010	.013	.799
	부모학력	.028	.007	3.959***	.028	.007	3.950***
	부모와의 대화	.149	.007	20.331***	.147	.007	20.134***
학교 및 교육	학교유형(1=직업계)	-.023	.018	-1.338	-.023	.017	-1.338
	학교유형(1=예체능계)	.045	.033	1.340	.043	.033	1.304
	학업성취	.162	.010	16.862***	.162	.010	16.881***
	교육포부	.061	.008	7.856***	.061	.008	7.836***
	진로교육 만족도	.096	.008	12.586***	.096	.008	12.574***
아르바이트	현장체험경험(1=있음)	.092	.015	6.105***	.091	.015	6.060***
	아르바이트 경험(1=있음)	.007	.017	.374	-	-	-
	아르바이트 동기(1=비금전)	-	-	-	.104	.034	3.073**
	아르바이트 동기(1=무경험)	-	-	-	.019	.019	1.002
	R ²	.139		.140			
	adj R ²	.138		.139			
	F	141.757***		130.845***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실시한 KEEP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연구대상은 KEEPⅡ 1차(2016)년도 조사에 참여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었으며(N = 10,558), 결측치를 제외한 9,666

명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선행연구와 비교하기 위해 청소년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 사이의 관계도 조사하였으며, 선행연구에서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수들을 통제함으로써 분석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31, 32]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하여 분석하면,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자기효능감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Cunnien 등(2009)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Cunnien 등(2009)의 연구는 아르바이트의 노동 강도 및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상사의 지원과 청소년의 경제적 및 일반적 효능감 간의 관계를 밝힌 반면,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의 관계를 규명하였다. 따라서 두 연구의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청소년의 관심과 전공과 관련되거나 ‘미래를 위한 준비과정’으로 취업경험을 쌓기 위해 비금전적으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에게 학습과 숙달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으며[12, 16], 그 결과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을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과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이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제시한 선행연구들[38, 39]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동기를 구분하면,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 사이에는 유의한 관련성이 있었다.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성숙을 보였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와 진로성숙 간에 정적인 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최은희(2017)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최은희(2017)의 연구는 아르바이트 업무의 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의 관계를 밝힌 반면,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성숙의 관계를 규명하였기에 그 결과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금전적 동기에서 시작한 아르바이트는 진로발달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 혹은 효과적으로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개인적인 준비도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이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성장을 경험하며[15], 일에 대한 의미를 다르게 부여하고[19], ‘주변 알바’가 아니라 ‘중심 알바’의 구조를 형성함으로써[28], 진로성숙도를 높였을 것으로 보인다.

셋째, 비금전적 아르바이트 동기를 가진 청소년은 금전적 동기를 가진 청소년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을 보였다. 이로써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와 진로발달 간에는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개인의 진로발달은 자기를 인식하는 것만큼 변화하는 직업세계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진로교육에서도 직·간접적인 직업 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실제 일하는 청소년에 대한 학문적·실천적 관심은 높지 않은 편이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발달의 관계가 유의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아르바이트 동기를 고려한다면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비금전적 동기로 아르바이트를 선택하고 수행하는 것은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과정에서 부모, 교사와 청소년지도자, 고용주와 상사 및 동료, 고객과 이해관계자 등 주변 사람들의 개입과 지원이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에 대한 교육적 지도방안이 모색되어 있지만[26],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논의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학습과 성장보다는 노동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하는 열악한 아르바이트 현실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노동인권을 넘어 진로개발의 관점에서 청소년이 아르바이트 선택하고 경험한 것을 지도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많은 청소년들이 금전적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고 있다는 현실을 보더라도 시급하고 중요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의 관심과 능력에 부합하는 아르바이트는 청소년의 진로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청소년이 그러한 아르바이트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43]. 따라서 자원봉사, 인턴십, 직무참관(job shadowing) 등 학교와 청소년기관 등 지역사회에서 후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직업체험을 통해 더 넓은 직업 환경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26].

이상과 같은 연구결과와 시사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의 한계와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를 중심으로 진로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아르바이트의 다양한 속성이 청소년의 진로발달과 관련 있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청소년이 수행하는 일의 속성과 청소년 발달과의 관계, 작업 환경과 경험에서 동료, 감독자 및 기타 사람들과의 상호작용과 청소년 직업역량 및 진로발달의 관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동기가 청소년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혔다. 그러나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고용의 조건과 질을 매개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셋째,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6년에 실시한 KEEPⅡ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수행되었다. 따라서 특정 시점에서 변수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데는 용이하지만, 점진적이고 지속적인 변화를 추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시간에 따라 청소년의 아르

바이트의 경험과 동기가 진로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넷째,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 아르바이트 동기가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가정배경 변수들과 학교 및 교육 변수들을 통제하였다. 그러나 진로결정 자기효능감과 진로성숙에 미칠 것으로 예측되는 일부 변인들은 이 연구에서는 다루지 못했다. 타당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와 논의를 위해 후속 연구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1. Bauer, J. (2013). Arbeit: Warum unser Glück von ihr abhängt und wie sie uns krank macht. 전진만 역. (2015). 왜 우리는 행복을 일에서 찾고, 일을 하며 병들어갈까: 번아웃 시대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책세상.
2. Ginzberg, E., Ginsberg, J. W., Axelrod, S., & Herma, J. L. (1951). Occupational choic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3. Homan, K. B. (1986). Vacation as the quest for authentic existence. The career development quarterly, 35, 14-23.
4. Rice, F. P., & Dolgin, K. G. (2008). The adolescent: Development, relationships and culture (12th ed.). 정영숙, 신민섭, 이승연 (2009). 청소년심리학. 시그마 프레스.
5. 안선영, 김희진, 강영배, 배경내 (2013). 청소년 직업체험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연구 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Ahn, S.Y., Kim, H.J., Kang, Y.B., Bae, K.N. (2013). Youth Part-time Employment and Work-related Experience Survey 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6. 김기현 (2003). 일하는 고등학생들. 한국사회학, 37(6), 115-144. (Kim, K.H. (2003). Working High-School Students: Effect of In-school Employment on Academic Achievement. Korean Journal of Sociology, 37(6), 115-144.)
7. Staff, J., Yetter, A. M. Cundiff, K., Ramirez, N., Vuolo, M., Mortimer, J. T. (2019). Is Adolescent Employment Still a Risk Factor for High School Dropout? Journal of research on adolescence, 30(2), 406-422.
8. 문성호 (2003). 학생청소년의 노동시장 참여와 비행간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0(3), 83-103. (Mun, S.H. (2003). Relationship between labor market participation and juvenile delinquency.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0(3), 83-103.)
9. 김성언 (2012). 청소년의 아르바이트와 비행 간 관계의 검토. 경찰학논총, 7(2), 433-458. (Kim, S.E. (2012). Reconsidering a problematic relationship between youth employment and delinquency. The Police Science Journal, 7(2), 433-458.)
10. 김재엽, 장대연 (2018).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경험이 학교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음주 및 공격성의 이중매개효과 검증. 학교사회복지, 41, 1-27. (Kim, J.Y., Jang, D.Y. (2018). The Effect of Part-time Job Experience on School Maladjustment: Double Mediation Effect of Alcohol Drinking and Aggression on Adolescent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41, 1-27.)
11. 하영선 (2019).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청소년의 식습관 및 건강위험행위에 대한 융합연구_제 13차(2017)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 조사를 바탕으로.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5), 407-415. (Ha, Y.S. (2019). Dietary habits and Health Risk Behaviors of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 Part-Time Job: Based on the 13th (2017) Korea Youth Risk Behavior Online Survey.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10(5), 407-415.)
12. Rauscher, K. J., Wegman, D. H., Wooding, J., Davis, L., Junkin, R. (2012). Adolescent Work Quality: A View From Today's Youth.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28(5), 557-590.
 13. Mortimer, J. T. (2003). *Working and growing up in America*.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14. 김지연, 김승경, 백혜정, 황여정 (2020). 2020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여성가족부. (Kim, J.Y., Kim, S.K., Baek, H.J., Hwang, Y.J. (2020). 2020 Youth Media Usage and Environment Survey.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15. 구승신 (2017).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성장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10), 406-419. (Koo, S.S. (2017). A Phenomenological Study on Growth Experience of Youth with Part-time Jobs. *Journal of the Kores Contents Association*, 17(10), 406-419.)
 16. 김정현 (2009). 학생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에 대한 문화기술지. 청소년복지연구, 11(3), 69-98. (Kim, J.H. (2009). Ethnographic Research on part time work experience of Youth.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1(3), 69-98.)
 17. Zimmer-Gembeck, M. J., Mortimer, J. T. (2006). Adolescent Work, Vocational Development, and Education. *Review of Educational Research*, 76(4), 537-566.
 18. Cunnien, K. A., MartinRogers, N., Mortimer, J. T. (2009). Adolescent work experience and self efficacy.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ology and Social Policy*, Vol. 29 No. 3/4, pp. 164-175.
 19. 한경혜 (2000).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 그 과정과 의미에 대한 질적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1(2), 153-180. (Han, G.H. (2000). A Qualitative Study on Part-Time Work Experience of Adolescents. *Studies on Korean Youth*, 11(2), 153-180.)
 20. 이기혜, 심재희, 우선영 (2016). 생존분석을 적용한 고등학생의 최초 아르바이트 경험 시점에 대한 영향요인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7(1), 95-124. (Yi, K.H., Shim, J.H., Woo, S.Y. (2016). Survival analysis on factors affecting high school students' first experience of time part-time work. *Studies on Korean Youth*, 27(1), 95-124.)
 21. 장원섭 (2001). 중·고등학생 시간제 취업 경험의 의미. 직업교육연구, 20(2), 95-108. (Chang, W.S. (2001).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Part-time Employment Experiences. *The Journal of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20(2), 95-108.)
 22. 양정호 (2004). 고등학생의 재학 중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분석: 청년패널조사의 위계적 일반화선형모형 연구. 교육사회학연구, 14(1), 17-37. (Yang, J.H. (2004). Part-Time Work Experience During High School: An HGLM Analysis of Youth Panel.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4(1), 17-37.)

23. 유성렬 (2010).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7(4), 47-66.
(Ryu, S.R. (2010). A study on the determinants of the participation in part-time work among adolescents.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7(4), 47-66.)
24. 박창남 (2010). 청소년의 재학 중 노동경험이 고교졸업 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지, 7(4), 107-128. (Park, C.N. (2010). Adolescents' Part-time Job Experience on Career after Graduation of High School.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7(4), 107-128.)
25. 이경상, 유성렬, 박창남 (2005). 청소년 아르바이트 참여경험의 실태 및 학교부적응 관련 효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Lee, K.S., Ryu, S.R., Park, C.N. (2005). Adolescents' part-time job participation experience and effects of school maladjustment.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26. Mortimer, J.T. (2010). The benefits and risks of adolescent employment. The prevention researcher 17 (2), 8-11.
27. 황나영, 이자형 (2011). 전문계 고등학교 여학생 아르바이트의 경험과 의미. 교육인류학연구, 14(3), 233-260. (Hwang, N.Y., Lee, J.H. (2011). The meaning of part-time job experience for vocational high school students in South Korea. Anthropology of education, 14(3), 233-260.)
28. 김혜경, 이광호 (2014). 아르바이트 청소년의 이중 노동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학연구, 21(10), 23-51. (Kim, H.K., Lee, K.H. (2014). A Phenomenological study on dual labor experiences of youth with part-time job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23-51.)
29. Taylor, K. M., & Betz, N. E. (1983). Applications of self-efficacy theory to the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career indecis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22(1), 63-81.
30. Bandura, A. (1989). Regulation of cognitive processes through perceived self-efficacy. Developmental Psychology, 25, 729-735.
31. 김서현, 정은숙, 명소연, Byambaakhuu Batzolboo, 정익중 (2013). 청소년의 직업경험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_자기주도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청소년복지연구, 15(3), 217-246. (Kim, S.H., Jung, E.S., Myung, S.Y., Byambaakhuu, B., Chung, I.J. (2013). The Influence of Work Experience on Adolescents' Job-seeking Self-efficacy: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Self-directedness.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5(3), 217-246.)
32. 고관우, 남진열 (2012). 대학생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스트레스 지각수준의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14(2), 149-168. (Ko, K.W, Nam, C.Y. (2012). A study on the Perceived level of Stress of College Students with Part-time Work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14(2), 149-168.)
33. Super, D. E. (1955). Dimensions and measurement of vocational maturity. Teachers College Record, 57, 151-163.
34. Sharf, R. S. (2016). Applying career development theory to counseling. 김진숙, 김정미, 서영숙(역). (2016). 진로상담: 아동기부터 성인기까지 진로발달 이론의 적용. 박학사.

35. Zunker, V. G. (2002). Career counseling. 김완석, 김선희(역) (2004). 커리어상담: 생애설계의 응용개념. 시그마프레스.
36. Crites, J. O. (1978). Career Maturity Inventory: Administration & Use Manual, Monterey, CA: CTB/McGraw-Hill.
37. 임 언, 정윤경, 상경아. (2001). 진로성숙도 검사개발 보고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Im, E., Jung, Y.K., Sang, K.A. (2001). A Technical Report for the Career Maturity Inventory.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38. 정경은, 이해경 (2005).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경험과 진로성숙도 관계. 청소년복지연구, 7(2), 59-79. (Chung, K.E., Lee, H.K. (2005). The Relationship between Adolescent Part-time Work Experience and Career Maturity. Journal of Adolescent Welfare, 7(2), 59-79.)
39. 김종성, 이병훈 (2010). 중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요인 및 진로성숙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1(3), 33-59. (Kim, J.S., Lee, B.H. (2010). A Study on Participation in Part-Time by Secondary School Students and their Career Maturity. Studies on Korean Youth, 21(3), 33-59.)
40. 최은희 (2017).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업무자율성과 진로의식성숙과의 관계.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7(6), 86-97. (Choi, E.H. (2017). Effects of Job Autonomy on Career Maturity in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Job Satisfaction. Journal of the Kores Contents Association, 17(6), 86-97.)
41. Hackman, J. R., Oldham, G. R. (1975). Development of the Job Diagnostic Survey.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60(2), 159-170.
42.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16). 한국교육고용패널Ⅱ 1차년도 조사: 사용자 지침서(User Guid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2016). Korea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 II: 1st Year Survey(User Guide).)
43. 황여정, 김정숙, 이수정, 변정현 (2015).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Hwang, Y.J., Kim, J.S., Lee, S.J., Byun, J.H. (2015). Research on the part-time work of the youth and policy direction II.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